

#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효율적인 첨삭 지도 방안

- '밑줄 탐구 첨삭'의 이론과 실제 -

임형모(군산대)

## 〈목 차〉

- |                            |                   |
|----------------------------|-------------------|
| 1. 서론: 첨삭 지도 연구의 현황과 문제 제기 | 3. '밑줄 탐구 첨삭'의 실제 |
| 2. '밑줄 탐구 첨삭' 방식의 도입       | 4. 결론: 과제와 전망     |

## 1. 서론: 첨삭 지도 연구의 현황과 문제 제기

대학에서 글쓰기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은 첨삭 지도를 애로점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학기말에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에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으로 담당 교수의 첨삭 지도를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만 봐도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첨삭 지도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교·강사의 입장에서 보

1) (대구)가톨릭대,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남서울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전남대, 중앙대, 한성대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첨삭 지도를 고찰한 많은 개별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공통감각으로써 첨삭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학생들이 답변한 내용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2015학년도 2월에 실시한 군산대학교 '기초핵심교육 개선을 위한 워크숍'에서 <글쓰기> 과목을 수강하고 설문에 응답한 1,924명의 학생들이 '글쓰기 능력 향상 만족도'의 여러 항목 가운데 '교수의 첨삭'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평균 76.5%로 가장 높게 집계된 사례도 있다(군산대학교 교육개발원, 『2015학년도 기초핵심교육 개선을

자면 첨삭 지도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수업과 첨삭이라는 이중고를 감내해야만 하는 고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은 대학마다 엇비슷하지만 학내에서 Writing Center를 운영하거나 첨삭 지도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규모가 비교적 큰 대학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첨삭 지도의 고충을 토로하는 실제적인 비율이 높은 경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 중소 규모의 대학에서 글쓰기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에게서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sup>2)</sup> 한 개인이 수업과 첨삭이라는 이중고를 모두 떠안고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무엇보다 교·강사가 해 주는 첨삭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내보이는 만족도는 높지만 첨삭 지도를 실행한 이후에 맞닥뜨리는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교수자들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며칠을 정성을 들여서 첨삭을 했지만 첨삭지를 받은 학생들의 반응은 무덤덤하기 일쑤고 꼼꼼하게 확인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다음 글에서도 똑같은 오류를 반복함으로써 교수자의 사기를 앗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것은 학력 격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sup>3)</sup>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일일이 대면첨삭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첨삭이 이루어진다면 요원한 일만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꾸준한 대면첨삭이나 지속적으로 해 주는 첨삭은 말이 쉽지 실제로 행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마다 재정이 넉넉해서 Writing Center를 만들거나 첨삭 지도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면 모르겠지만 대학들의 여건상 그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안은 첨삭 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

위한 워크숍」, 2015. 2).

2)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수강 인원이 많다면 첨삭 지도의 고충은 엇비슷하다.

3) 현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을 정도로 기존 학력이 미달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난감하지만 한 학생의 글도 다수 접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교수법으로서 첨삭 지도를 연구한 논문들은 단편적으로 언급한 연구들까지 포함하면 일일이 세기도 버거운 만큼 성과를 많이 내고 있었다. 연구는 대개 대면첨삭, 교수첨삭, 자기첨삭, 상호첨삭 등이 지닌 교육적 효과를 사례와 함께 분석하면서 본인이 주도한 수업방식의 효용성을 보고하는 방식과 관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첨삭을 실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지를 고찰한 연구들이다.<sup>4)</sup> 글쓰기 논문의 의의가 수행된 수업모델을 보고 자신의 수업에 반영하고 조율하며 최종적으로 확산하는 데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개별 연구들은 나름대로 중요하며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성과들인데, 단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수업방식의 효용’과 ‘교육적 효과’는 강조하면서도 ‘투자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효율’은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다.<sup>5)</sup> 부연하자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첨삭을 교수자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본고의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다. 본고는 첨삭을 학습자의 영역으로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신의 글을 수정하게 하는 고쳐쓰기의 일환으로 정의하고자한다. 이때 교수는 조력자가 되는 효율적인 첨삭 지도 방식을 제안하고자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앞서 제기한 수강 인원이나 학력 격차 등으로 첨삭 지도의 고충을 토로하는 교수자들을 위해서 기획되었다. 더불어 연구원이나 조교 등의 첨삭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키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학 등의 여타 기관에서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교수자 개인이 수업부터 첨삭까지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첨삭하는 시간은 줄이면서도 지도의 효과는 배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밑줄 탐구 첨삭(Writing Feedback Line)’을 제안코자하며, 밑줄 탐구 첨삭의 실재를

- 
- 4) 개별 연구 성과를 여기에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또 한 편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실제로 경향만을 다룬 연구로 ‘주민재, 『첨삭지도와 수정의 관점에서 고찰한 대학 글쓰기 연구 경향』, 『국어문화』, 국어문화회, 2014도 있음)과 같기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집필 방향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연구들은 본문에서 부분적으로 다시 인용할 생각이다. 첨삭 지도를 연구한 논문들은 대표적으로 최규수(2001), 박영우(2006), 오윤호(2008), 김경환(2009), 박진숙(2009), 염민호·김현정(2009), 나은미 외 4명(2009), 주세형(2010), 지현배(2011), 김낙현(2012), 손혜숙(2012), 남진숙(2013), 신현규(2013), 안미애·김영철·지현배(2013), 이순옥(2014), 이재현(2014) 외 다수가 있다.
- 5) 첨삭 지도의 효용성을 고찰한 연구는 ‘박상민·최선경(2011), 이순희(2014), 변상출(2014) 등이 있다.

글의 형식적, 구성적, 내용적, 어법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한다.

## 2. '밑줄 탐구 침삭' 방식의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서 수학할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해주는 절차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 중소 규모의 대학에서는 기초 학력이 미달하는 학생이 입학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그 때문에 학생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 점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된 지 오래고 전공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학들은 학력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수업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습 능력이 미달하는 학생들을 독려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sup>6)</sup> 이 점에서는 글쓰기 교과도 예외가 아니다.

기존의 글쓰기 교육은 쓰기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한 방법으로 중요시하는 침삭 지도 또한 학습자가 주체가 되지 못했다.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듯이 글을 써 놓고 교수의 침삭을 오롯이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 수동적 형태에 머물렀다. 글쓰기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것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주체라면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자신

---

6) 이런 상황에서 글쓰기 교육이 맡은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부연하자면 글쓰기 교육의 위상은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것 이상으로 일정 부분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담당할 주체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신자유주의의 경쟁 구도 속에서 같은 학과 내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을 힘겨워하며,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아웃사이드의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인간으로서 타인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인간교육을 위해서 또 다른 인성 교육을 제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기존의 글쓰기 교육에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글쓰기 교육이야말로 소통하는 인성 교육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초 글쓰기 교육이 나아갈 방향도 단순히 글을 잘 쓰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성을 함양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통'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읽기, 쓰기, 말하기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글쓰기 교육이 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의 생각이 없을 수가 없다. 부연하자면, 첨삭 지도는 첨삭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sup>7)</sup> 첨삭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통이 가능한 자리에서 대화를 기다리는 ‘대화하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효과적이다.<sup>8)</sup> 어디까지나 첨삭의 주체는 글을 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에게 본인이 작성한 모든 글을 스스로 수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글은 수정할수록 좋아진다는 전제에서 수정의 주체는 교수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유는 글을 쓰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를 수 있기에 그러하다. 교수자가 학생의 글을 읽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학습자의 의존적 성향은 교육적 효과를 생각할 때 그리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sup>9)</sup>

이때 중요한 것이 첨삭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첨삭을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갈래에서 방향을 겪게 된다. 첨삭을 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해당 텍스트를 읽는 부분과 글을 쓴 사람의 관점에서 읽는 일이 그것이다. 전자의 입장에서 첨삭을 진행하다 보면 전부 다시 써야만 할 것 같은 글들을 부지기수로 만나게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그런 대로 봐 줄 수 있겠다는 알팍한 판단 속에서 교수자 스스로 타협을 하고 만다. 전자의 입장에서 여백이 보이지 않을 만큼 뻑뻑하게 첨삭을 했다고 하면 첨삭하는 사람의 자기만족은 얻기 쉬우나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으며, 후자의 입장은 힘은 덜 드나 대개 잘못된 맞춤법 정도를 지적해 주는 선에서 첨삭이 마무리가 된다. 후자의 경우 첨삭지를 받아든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결코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자신이 쓴 글

7)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피드백이나 교사의 주관적 취향과 스타일을 강요하는 문장 교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미숙한 필자들에게는 글쓰기의 의욕을 상실케 하고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글쓰기를 가로막는 일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은자, 앞의 글, 133면).

8)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지도에서 해방된 뒤에도 일생동안 미성년의 상태에 머무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매우 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Immanuel Kant, 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 철학』, 서광사, 1992, 13~14면). 교육이 인간을 계몽하여 개인에게서 자유의지를 발현케 하는 것이라면, 첨삭 지도에서도 교수자는 조력자에 머무를 필요성이 있다.

9)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결국 교사가 학생의 글을 대신 고쳐주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학생들이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되면 학생들은 더 이상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은자, 위의 글, 139면).” 마찬가지로 “교수자의 첨삭은 의도와 상관없이 필자의 쓰기 과정을 단절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주민재, 앞의 글, 430면)”려울 수도 있다.

에서 수정이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등의 답변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침삭은 안 하나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학습자가 교수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까지 전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총평이다. 총평 또한 한두 줄로 간단하게 기술이 되면 학습자가 글을 수정하는 데 영향을 하등 줄 수가 없다. 교수자의 입장에서 ‘난 총평까지 했어’ 라는 자기만족에 그치기 쉽다. 도움이 되는 총평은 (글을 숲이라고 가정했을 때) 숲 밖에서 글을 봤을 때와 숲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고찰한 결과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세 줄로 마무리할 영역이 절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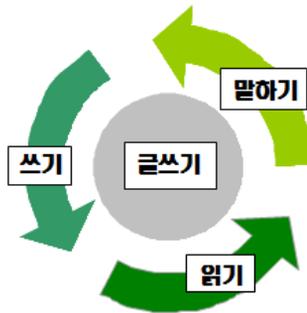
그렇다면, 교수자의 자기만족에서 벗어나고 학습자를 만족시키며 교육의 효과는 배가할 수 있는, 즉 ‘투자한 시간’과 ‘효율’을 고려한 침삭 지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글쓰기 수업에서 간혹 교수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기초 글쓰기 수업의 목적이 글을 쓰는 데에 있기 때문에 유독 쓰기를 강조하는데, 당연한 것이지만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평가, 즉 올바른 독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쓰기 이전에 읽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부연하자면 쓰기를 가르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읽기이다. 때문에 쓰기를 강조하기 이전에 제대로 읽는 법, 즉 독서법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었을 때 효과적인 읽기가 가능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쓴 글에 자신이 없으며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에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글을 쓸 때마저도 정답을 찾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기부정을 교수자가 깨트려 주지 않으면 글을 쓰는 능력의 향상도 침삭 지도의 효과도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덧붙이자면, 올바른 독서법으로 깨우쳐 주어야 할 부분은 이 세상의 모든 글은 평등하며 소중하지 않은 글이 없다는 점을 일깨우는 데 있다.<sup>10)</sup> 기초 글

10) 이상원은 어떤 교수가 작성한 글을 필자인 교수의 정보를 지우고 해당 글을 학생들과 함께 읽어 감으로써 “모든 독자의 구미를 만족시키는 글은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정답이 되는 글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더불어 “권위에 눌려 감히 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 “또 어떤 지위에 있는 누가 쓴 글이든 모두에게 좋은 평가만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이상원, 『서울대학교 인문학 글쓰기 강의』, 황소자리, 2011, 48~49면)”

쓰기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글 모두가 (표절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임을 인식했을 때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는 수동적인 부분에서 능동적인 부분으로 선회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글쓰기 수업은 ‘쓰기-읽기-말하기’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쓴 글을 올바른 방식으로 읽게 하고 쓰기로 평가하게 하며 평가한 결과를 보고 말하게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읽기부터 말하기까지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가운데 응전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으며, 그러한 단계적이며 지속적인 활동 속에서 쓰는 능력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된다.



이러한 순환의 고리에서 침착 지도가 개입하는 지점은 학생들이 쓴 글인 1차 텍스트와 1차 텍스트를 보고 평가한 다른 학생들의 글(2차 텍스트) 전체가 된다. 이제 능동적으로 변한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글을 수정하는 데에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한다. 꼼꼼한 수정으로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일러주지 않아도 되며, 밑줄과 박스만으로 충분한 침착 지도가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간접전달(indirect communication) 교수법이다.

김광민에 따르면, “교육은 상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일보다 종교적 심성을 기르는 일에 가까운 일이라면, 그리고 종교적 심성이 교육에서 추구하는 심성과 다른 것이 아니라면, 잠정적으로나마 교육활동에서도 간접전달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sup>11)</sup>기에, “간접전달은 전달자를 중심으로 하여 전달

줌으로써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독려하면서 글을 쓰는 자신감을 심어 주고 있다.

내용이 다루어지고, 이 사태에 놓여있는 피전달자로 하여금 전달내용을 다루는 전달자의 태도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피전달자의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sup>12)</sup>고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밀줄 탐구 첨삭(Writing Feedback Line)’은 전달자인 교수자가 제시한 밀줄과 박스<sup>13)</sup>를 피전달자인 학습자가 탐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간접적 계기’<sup>14)</sup>를 제공하는 첨삭 지도이다. 대단위 및 소수의 강의 집단에 모두 적합한 방식이며, 지면을 활용한 지도가 일반이나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지도 방식이다.

덧붙이자면, ‘밀줄 탐구 첨삭(Writing Feedback Line)’은 학습자가 작성한 글에 밀줄과 박스만으로 첨삭의 임무를 완수한다.<sup>15)</sup> 교수자는 학습자의 글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밀줄을 긋거나 박스를 쳐 줌으로써 비로소 학습자는 탐색을 시작한다. 형사가 폴리스 라인 안쪽에 있는 단서를 보고 수사를 진행하듯이 학습자는 밀줄이 그어지거나 박스가 쳐진 부분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글이 지닌 문제점을 찾고 이를 수정해 나가게 된다. 이때는 미리 아래와 같은 단서(탐색지)를 제공해 놓고<sup>16)</sup> 그 안에서 오류를 고민하도록

11) 김광민, 「교과교육과 간접전달」, 『도덕교육연구』 제22권 2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011, 199면.

12) 위의 글, 199면.

13) 물론 ‘박스’ 대신 ‘동그라미표’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표가 작은 영역에 디테일한 표시를 하는 데에는 나쁘지 않으나 사각형으로 된 평면이다 글을 쓰는 일에서 동그라미표는 오류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리 효과적인 방식이 되지 못한다.

14) Manheimer에 따르면, ‘간접적 계기’란 ‘미지(未知)의 것’을 발견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미지의 것’을 경험하는 조건 그 자체라면 소크라테스는 ‘간접적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 계기는 인간 의식의 발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공헌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Ronald J. Manheimer, 이홍구·임병덕 역, 『키에르케고르의 교육이론』, 교육과학사, 2004, 50~52면 참조).

15) ‘밀줄 탐구 첨삭(Writing Feedback Line)’이란 ‘폴리스 라인(Police Line)’이란 용어를 보며 필자가 고구해 낸 말이다. 폴리스 라인이 그어지는 순간 수사가 시작되며, 형사들은 라인 안의 단서를 관찰하고 탐색하면서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 간다.

16) ‘탐색지’는 본격적으로 ‘밀줄 탐구 첨삭’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사전에 제시하는 부분이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글에 쳐진 밀줄과 박스의 내용이 탐색지에 있는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탐색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글을 수정하도록 교육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탐색의 주체가 되도록 지도를 한다. 한편, 손혜숙의 경우도 사전에 점검지를 제시하고 첨삭을 유도하는 방식이 지닌 효용성을 언급한 바 있(손혜숙, 앞의 글, 424~435면 참조)는데, 이 방법은 학생들 간의 상호 교차 첨삭과 조별 첨삭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또한, 다소 다른 부분이지만 이순희는 글을 쓰기 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성취평가항목과 성취기준 예시문을 제시함으로써 ‘글쓰기 전 첨삭 지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첨삭 지도의 효용성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글을 수정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이다.

‘밀줄 탐구 첨삭’ 시 제시하는 탐색지17)

구분 순번	탐색 항목	표시 방법
형식적 측면	① 제목(부제)-이름(소속)-(목차)-본문	밀줄 혹은 박스 <sup>18)</sup>
	② 들어쓰기 및 문단 나누기	박스
	③ 문장 부호	밀줄
	④ 인용 방식 (간접 및 직접)	밀줄 혹은 박스 <sup>19)</sup>
	⑤ 각주 작성 (내각주 및 외각주)	밀줄
	⑥ 참고문헌	밀줄 혹은 박스 <sup>20)</sup>
구성적 측면	① 전체 글의 구성 (목차 포함)	박스
	②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	박스
	③ 문단의 주제	박스
	④ 문단 내 소주제의 위치	박스
내용적 측면	① 글의 제목과 내용의 조화	밀줄
	② 전달하고자하는 글쓴이의 생각	박스
	③ 내용적 오류	밀줄
	④ 부연 설명	밀줄
	⑤ 표절	밀줄 혹은 박스 <sup>21)</sup>
어법적 측면	① 문법(호응, 중복, 병렬)	밀줄
	② 용어 및 낱말 (조사 사용)	밀줄
	③ 번역 투	밀줄
	④ 과도한 피동	밀줄
	⑤ 간결한 글쓰기 (과도한 만연체)	밀줄 혹은 박스 <sup>22)</sup>
	⑥ 어색한 표현 (수식어와 피수식어, 불확실한(애매한) 표현, 불필요한 표현이나 문장, 접속어 사용)	밀줄
	⑦ 문어체	밀줄
	⑧ 시제	밀줄
	⑨ 시점	밀줄
	⑩ 맞춤법	밀줄
	⑪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	밀줄
	⑫ 띄어쓰기	밀줄

고찰하기도 했다(이순희, 앞의 글, 145~152면 참조).

- 17) 탐색지에 정리된 탐색 항목들은 필자가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한 내용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수정·보완을 하여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 18) 간혹 본문만 있는 글을 만나게 되는 경우 박스를 활용한다.
- 19) 문단을 활용한 직접 인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박스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밑줄 탐구를 혼자 하기 보다는 자신의 탐색지를 동료들과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도록 유도 및 주문해야 한다.<sup>23)</sup>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도 자신의 글이 지닌 문제점을 도져 발견하지 못한 학습자라면 교수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교수자는 그때를 기다리는, 즉 ‘대화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밑줄 탐구 침삭을 수행한 이후에는 학생이 수정한 글을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 교수자가 제시한 탐색의 범주(Feedback Line)

어렸을 때 부터 나는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노는 것이 더 좋았고, 텔레비전을 보며 만화 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 또 또래친구들 보다도 남다른 체력을 가진 것이 선생님 눈에 띄어 '정구' 라는 운동을 하게 되었다.



(B) - 학습자가 수행한 ‘밑줄 탐구 침삭’의 결과

어렸을 때 부터 나는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노는 것이 더 좋았고, 텔레비전을 보며 만화 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 또 또래 친구들보다도 남다른 체력을 가진 것이 담임선생님 눈에 띄어 '정구'라는 운동을 하게 되었다.

예시에서 (B)의 수정문을 보면 앞서 제시한 탐색의 범주에서 오로지 ‘띄어 쓰기’만을 적용하고 있다. 중복된 표현인 ‘~더 좋았다’나 ‘보며’와 ‘보는’ 등을 잡지 못해서 어색한 표현이 그대로 있으며, 무엇보다 단어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남다른 체력’, 즉 ‘체력’인지 ‘체격’인지 분명하게 하지 않아 애매한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때 재차 밑줄 탐구 침삭을 해 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나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sup>24)</sup>

20) 대학 글쓰기를 수행할 때 간혹 참고문헌을 작성하지 않은 글을 만나게 되는 경우 박스를 활용한다.

21) 표절한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박스를 활용한다.

22) 문장이 매우 긴 경우에는 박스를 활용한다.

23) 어찌 보면 이 부분이야말로 ‘밑줄 탐구 침삭’이 지닌 진정한 매력일지도 모르겠다. 서로의 글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24) 재차 밑줄 탐구 침삭을 유도하면 학습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교나 연구

끝으로, ‘밀줄 탐구 침삭’은 학습자가 지닌 능력에 따라 탐색의 강도를 달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의 글을 읽은 교수자는 학습자가 지닌 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으며 그에 따라 학습자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 밀줄을 긋거나 박스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습자의 경우에도 자기 탐색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3. ‘밀줄 탐구 침삭’의 실제

침삭 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교수자들은 침삭을 위한 나름의 노하우를 발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글쓰기 교육이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그 어떤 교양 과목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글쓰기를 강의하는 교수자의 소신 있는 지도가 절실해지고 있다.<sup>25)</sup>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교육은 과정을 중시하든지 시차를 달리하며 종류별로 글을 작성하든지 간에 크게 서사와 묘사가 중심이 되는, 즉 감정이 지배하는 ‘감성적 글쓰기’와 책이든 영화든 나름대로 텍스트를 소화하고 글을 쓰는 비평적 에세이가 중심이 되는, 즉 ‘감정과 이성이 적절히 결합한 글쓰기’

---

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야만 했다. 재차 밀줄을 쳐 주든지 아니면 다른 글에 계속해서 밀줄을 쳐 줌으로써 밀줄 탐구 침삭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매번 새로운 글에 밀줄을 쳐 주는 것만도 쉬운 일은 아니나, 필자는 각기 다른 글에 11번의 밀줄을 쳐 줌으로써 총 11회의 밀줄 탐구 침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 학기(4분반 12시간 수업)에 모두 1,108명에 해당하는 침삭 지도가 가능했다. 밀줄 탐구 침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25) 학습자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어떻게 타인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며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글쓰기 교육이다. 부연하자면, 소통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 대학일수록 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타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등 재학생의 중도탈락율이 높아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중도탈락율이 높다는 것은 학과의 존폐는 물론 나아가 학교의 존폐를 논해야 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학력이 떨어지니 학교를 계속 다닐 맛이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동기들과 어울리는 것은 더욱더 거북한 무엇이 된다. 교수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가르쳐서 문리를 깨우쳐 줬더니 다른 학교로 떠나 버리는 현실과 대면하기도 한다. 대학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과 상담하는 것을 업적으로 인정해 주면서까지 교수들에게 학생들과 상담할 것을 독려하는 상황이 현재 대학들이 처한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보더라도 학생들의 인성을 겨냥한 글쓰기 교육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대학 글쓰기의 전형인 리포트나 보고서, 소논문, 즉 이성이 지배하는 글쓰기'로 정리할 수가 있다.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려면 글쓰기 교육은 감정이 지배하는 글쓰기로 시작해서 이성이 지배하는 글쓰기로 마무리함으로써 전공교육과의 연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수업은 앞서 언급한 대로 올바른 독서법을 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데<sup>26)</sup>, 그 이유는 자신과 함께 수강하는 학생들이 쓴 글 모두가 소중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예를 들어 한 분반이 평균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감성적 글쓰기'를 수행하게 하여 서술과 묘사로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진정한 자신만의 정체성을 글로 쓰게 한다. 제출된 글을 읽고 나머지 29명의 학생들은 평가문을 작성해야 하며, 학생들의 평가를 받은 학생들은 학생들이 평가한 글을 읽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화의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상호간 친화력을 높이는 것이다.<sup>27)</sup>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두 번째는 비평적 에세이를 쓰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성이 지배하는 대학 글쓰기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공수업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sup>28)</sup> 한 마디로 '쓰기-읽기-말하기'가 하나로 통합되는 글쓰기 교육인데 교

26) 교수자마다 독서와 관련해서 다른 주문을 할 수 있지만, 필자는 이상원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상원은 먼저 숲을 보라고 주문한다. 즉, 전체 구성, 핵심 내용, 글에서 마음에 드는 점과 그렇지 않은 부분, 주제와 관련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동조나 반박,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 등과 같이 전체 열개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숲 속으로 들어가 글의 장단점이나 개선 방향(비평, 조언, 예시의 적절성, 문단의 순서, 삭제나 첨가 등) 등을 살펴라고 한다(이상원, 앞의 책, 46~49면 참조).

27) 평가문의 작성은 올바른 독서법이 기준이 된다. 처음에는 무성의하게 평가문을 작성하던 학생들도 꼼꼼하게 읽고 열과 성의를 다한 다른 학생들의 평가문을 접하고 나면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 이후에는 평가문을 쓰는 것은 물론이요 평가받을 자신의 글을 다시 쓰고 싶다는 학생들을 다수 접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와 토론으로 서로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화력이 형성되면 학과는 물론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글쓰기만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교과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28) 글쓰기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2+1 혹은 1+2)이면, 1시간은 이론, 1시간은 평가문 작성, 1시간은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원고지에 글을 쓰는 '나만의 정체성 찾기'를 제외하면 1차 텍스트는 모두 수업 시간 이외에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e-class에 탑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글쓰기를 하는 데 따른 글의 분량은 '나만의 정체성 찾기'는 A4 1장, '비평적 에세이'는 A4 2장, '대학 글쓰기'는 A4 3장으로, 점차 써야 할 글의 양을 늘려간다. 또한 평가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자는 e-class에 차수별로 평가 대상문을 탑재한다. 학생들은 대상문을 개별적으로 프린트를 하여 수업 시간에 가지고 들어오며, 교수자가 나눠준 평가지에 대상문을 읽고 평가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수자는 이를 다시 수합하여 e-class에 탑재

수자는 ‘쓰기’와 ‘평가하기’에 모두 개입하여 밑줄 탐구 침삭이 가능하도록 밑줄을 긋거나 박스를 쳐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한 학기에 통상 3편의 글을 쓰고, 1편의 글마다 3번의 평가문을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3번의 밑줄 탐구 침삭을 수행해야 하며, 본인이 작성한 1차 텍스트도 밑줄 탐구 침삭을 수행해야 한다.<sup>29)</sup>

과제 수행 침삭 수행	나만의 정체성 찾기 (감정이 지배하는 글쓰기)	비평적 에세이 수행 (‘감정+이성’ 글쓰기)	대학 글쓰기 수행 (이성이 지배하는 글쓰기)	합계
1차 평가문	3회	3회	3회	9회
2차 평가문				
3차 평가문				
본인 글 수정	1회	1회	밑줄 탐구 침삭 없음	2회
총 합계	개인당 총 11회의 밑줄 탐구 침삭 유도			

### 한 학기에 학생 1인당 수행하는 ‘밑줄 탐구 침삭’ 횟수

스스로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게 하고(나만의 정체성 찾기) 자신을 바라본 그 눈으로 다른 대상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글을 쓰며(비평적 에세이) 그러한 자신의 생각에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글쓰기를 수행하게 하는 순차적 과정에서 글이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는 일임을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더불어 밑줄 탐구 침삭으로 스스로 자신이 쓴 글을 수정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밑줄 탐구 침삭을 유도하는 피드백 라인(feedback line)은

하면 평가 대상자는 학생들이 평가한 글 전체를 읽고 평가자별로 답변을 준비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 29) 본 글쓰기 수업의 인원은 20명 이내가 적당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와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30명의 수업 인원을 반으로 나누어서 ‘나만의 정체성 찾기’에서 15명을 3주에 걸쳐 매주 5명씩 평가를 받게 하면서 발표를 시키고, 나머지 15명은 ‘비평적 에세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마지막 ‘대학 글쓰기’에서는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마지막 ‘대학 글쓰기’를 수행할 때에는 밑줄 탐구 침삭을 유도하지 않았다. 오로지 학생들의 평가와 개인의 능력만으로 침삭을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실체를 살펴보자. 밑줄 탐구 첨삭은 2장에서 제시한 탐색지에 있는 항목대로 글을 숲 밖에서 조망하는 방식에서 숲 안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관찰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무엇보다 1차 텍스트는 물론이고 평가문을 작성할 때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사전을 확인하면서 글을 쓰도록 유도한다. 이것은 모든 글쓰기를 수행할 때에 학습자가 꼭 해야 하는 전제에 해당한다.

학생들에게 밑줄 탐구 첨삭을 주문할 때에는 교수자가 밑줄을 쳐 준 부분에서만 탐색을 하고 수정을 하도록 주문을 한다. 박스로 제시한 부분에서는 문단의 위치를 조정(재배열)하거나 내용을 정정하는 등 학습자가 자의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 수정한 부분에는 반드시 밑줄을 쳐서 제출하라고 지도해야 한다.<sup>30)</sup>

### 1) 형식적·구성적 측면

모든 글을 원고지에 쓴다고 하면 형식적인 부분은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글자 포인트나 행간을 정해 주고 프로그램상에서도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한다는 약속 하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도를 한다. ①제목(부제)-이름(소속)-(목차)-본문, ②들여쓰기 및 문단 나누기, ③문장 부호, ④인용 방식(간접 및 직접), ⑤각주 작성(내각주 및 외각주), ⑥참고문헌 등이 탐색 항목이 된다.

①은 제목(부제)이 없는 경우에 박스를 치고, 필자의 생각이 담기지 않은 제목 등에는 밑줄을 친다. 예를 들어 비평적 에세이의 제목이 ‘비평적 에세이’거나 ‘~을 읽고’ 등 고민이 담기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③은 잘못된 문장부호를 사용하거나 문장부호가 없는 경우, 그리고 문장부호 대신 이모티콘(emoticon)을 사용한 경우 등에 밑줄을 친다. ④는 간접 및 직접 인용 방식이 규정에 어긋난 경우에 밑줄을 치고, 문단을 활용한 직접 인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박스를 쳐 준다. ⑤의 경우도 규정에 어긋난 경우에 밑

30) 실제로 밑줄을 치다 보면 교수자가 놓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경우 현명한 학습자는 알아서 수정을 해 오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경우 수정하기가 귀찮으면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제출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줄을 친다. ⑥은 참고문헌의 작성이 잘못된 경우에는 밑줄을 치고, 참고문헌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박스를 친다. 끝으로, ②의 경우에는 박스를 치는데, 들여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게 박스를 치며 문단을 나누지 않았거나 문장마다 문단을 나눈 경우에는 박스를 크게 친다. 아래와 같다.

나는 이 책을 보기 전에도 흡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흡연(吸煙)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길을 걸다 보면 어디에서든지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피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 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등등 많은 흡연자들을 볼 수 있다. 가까운 편의점에만 가도 형형색색의 포장지 안에 담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네모난 담배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소설의 배경만큼 흡연자의 탄압이 심한 곳은 아니다. 하지만 담배를 싫어하는 나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 20살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흡연자들이 왜 담배를 피우는지, 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기에 담배를 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글의 구성적 측면에서는 ①전체 글의 구성(목차 포함), ②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 ③문단의 주제, ④문단 내 소주제의 위치 등이 탐색 항목이다.

본격적으로 대학 글쓰기에 들어가면 교수자에게는 학습자가 쓴 글을 읽고 밑줄을 쳐 주는 것만도 매우 버거운 일이 되기 쉽다. 따라서 학습자가 쓴 글에서 구성을 봐 줄 때에는 A4 1~2장 정도로 작성하는 글쓰기를 본보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일단, 아래 예시문은 교수자가 수행한 피드백 라인(Feedback Line)이다.

(㉑)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나를 알리는 글을 쓰게 된 사회복지학과 김○○이라고 합니다.

(㉒)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저 자신을 제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알리는 글쓰기는 저에게 하나의 시련이기에 제가 아무리 못해도 상처는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㉓) 저는 못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못생기지 않습니까? 걱정마세요! 저도 못생긴건 알고 있으니 6개월 뒤에는 더 잘생긴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못생긴 모습을 참아주세요.

(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제 외모를 말한 이유는 저는 연애경험이 없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실분 있으시면 연락이라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라도 기다리고 있어요. 인제 외모는 그만 말하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무너지고 있는것 같아서 환승만 나오고 있거든요.

(㉕) 다시 저를 소개하면, 저는 마카롱, 커피, 음악을 좋아합니다. 제 삶의 활력소같은 것들입니다. 이 3가지는 제에게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 3가지로 유혹하시면 됩니다. 단 과격한 운동, 화풀이, 무시는 저에게 분노로 자극되니 조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㉖) 저는 음... 소개할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머릿에서 생각해보게요. 아! 저는 말이 많고 분위기 파악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말 친구가 필요하거나 사소한 고민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진지한 고민은 피해주세요.

(㉗) 저는 합리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의문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것이 항상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깐요. 저는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좋습니다. 의문을 가지기도 좋고 가혹한 진실보다는 웃으면서 지나갈수 있는 거짓말이 좋습니다.

(㉘) 더 이상 진짜로 쓸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지만 저를 기억하기 힘들다면 마카롱, 김동 또는 똥!이라고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문은 내용적·어법적 측면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구성적 측면만을 살피려고 한다.<sup>31)</sup> 8개의 문단으로 ‘나만의 정체성 찾기’를 수행한 글인데, 무엇보다 전체 글의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박스를 쳤다(㉑). (㉑)은 ‘소개’이고 (㉒)은 ‘당부’, (㉓)과 (㉔)은 ‘생김새’, (㉕)은 ‘기호’, (㉖)은 ‘성격’, (㉗)은 ‘성향’, (㉘)은 ‘마무리’이다. 각 문단마다 대구의 방식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글인데, (㉓)과 (㉔)은 문단의 연결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고(㉑), (㉕)은 ‘좋아하는 것’과

31) 한글 자음으로 항목화한 부분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밀줄 탐구 침삭’에서 실제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다(이하 동일). 본 논문에서는 박스나 밀줄을 모두 붉은색(꼭 ‘부정적 피드백’ 방식을 상징하는(이은자, 앞의 글, 142면)) 붉은색으로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으로 처리했음을 감안하기를 바란다.

‘조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서로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소주제가 무엇인지 부분명하며, 그러다 보니 소주제의 위치 또한 애매해졌다(③과 ④). 이러한 경우에는 박스를 쳐 주면 된다.

## 2) 내용적 측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글의 제목과 내용이 조화되는지(①)를 살피고, 글쓴이의 생각이 분명한지(②)를 고찰한다. 또한 내용적으로 오류는 없는지(③),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④)를 살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데에 표절된 부분은 없는지(⑤)도 고찰해야 한다. 주로 비평적 에세이와 대학 글쓰기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측면이다. ②의 경우는 에세이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하는 주제가 없이 그저 텍스트의 줄거리 정도만 요약한 경우는 전체 글에 박스를 친다.

<예시 ①> 제목과 내용의 조화

### 비정규직 비판영화 <카트>

인용은 영화 <카트>를 보고 쓴 비평적 에세이의 제목이다. 에세이의 주제는 <카트>가 비정규직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라는 것인데, 제목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로 기술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밑줄을 친다.

<예시 ③> 내용적 오류

내가 느끼기에 그것은 소녀가 가진 욕망의 표출이었다. 이 모습을 본 이적요는 자신이 동경하고 욕망하던 대상이 깨어졌다는 좌절감에 이적요의 차를 망가뜨리고 그 차를 타고 돌아가던 이적요는 결국 사망한다. 이적요는 자신이 한 일을 은교에게 알리고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

영화 <은교>를 보고 쓴 비평적 에세이이다. 밑줄을 쳐 준 부분은 죽은 사람이 ‘이적요’가 아니라 ‘서지우’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오류를 잡아보라는

차원이었다. 이런 경우에 밑줄을 친다.

<예시 ④> 부연 설명의 필요 여부

글에서 갑자기 다른 말이 나와선, 읽는 데 지장이 생기기는 했지만,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같다. ‘첫째’ 라는 정체성 말고 다른 정체성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궁금하다.

인용문은 ‘나만의 정체성 찾기’를 수행한 1차 텍스트를 읽고 평가한 평가문의 일부이다. 밑줄을 친 부분에서는 ‘갑자기 다른 말’을 설명하지 않아서 독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내용적으로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 밑줄을 친다.

<예시 ⑤> 표절 여부

소설 <허삼관 매혈기>에서는 중국을 무대로 하여 중국 역사에서 194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국공합작과 공산주의정부수립, 인민공사, 문화대혁명 등 굵직한 굵직한 역사적 기점에 따라 가진 것 없지만 가족들과 함께 단단하게 사는 자신을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순박하고 착한 허삼관이라는 한 사나이의 삶이 적절하게 녹여져있어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영화 <허삼관>을 보고 쓴 비평적 에세이의 일부인데, 이 영화는 중국 소설이 원작이다. 이 학생은 소설을 읽지도 않고 마치 읽은 것처럼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글에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부분을 밑줄이나 박스로 표시한다. ‘밑줄’은 표절한 내용이 적을 때 활용하고 ‘박스’는 그 범위가 넓을 때 제시한다.

### 3) 어법적 측면

어법적 측면에서는 ①문법(호응, 중복, 병렬), ②용어 및 낱말(조사 사용), ③번역 투, ④과도한 피동, ⑤간결한 글쓰기(과도한 만연체), ⑥어색한 표현

(수식어와 피수식어, 불확실한(에매한) 표현, 불필요한 문장 및 표현, 접속어),  
 ⑦문어체 구사 여부, ⑧시제, ⑨시점, ⑩맞춤법, ⑪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  
 ⑫띄어쓰기 등이 탐색 항목이 된다.

(전략) (ㄱ) 도입 부분에서 주인공 홍만섭이 군대에 전역을 하고 대학에 복학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중략) (ㄴ) 정말 내가 슬픈 장면 이었다. (중략)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홍만섭에게 아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참 인심이 되며 ‘다행이다’ 라고 (ㄷ) 혼자서 생각했었다. (중략) 강민은 축구선수였는데 (ㄹ) 부상으로 인해 그만두고 하루하루 지루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중략) 보는 내내 입꼬리가 올라가고 (ㅁ) 피식하는 부분이였다. (중략) 이 영화는 ‘청춘을 즐겨라’ 라는 의미를 (ㅂ) 전달하는 것 같다.

(ㄷ)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는 점이 보기 좋다.

나는 이 책을 보기 전에도 흡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ㅇ) 흡연(흡연)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ㄱ) 그러나 길을 걷다 보면 어디에서든지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피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 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등등 많은 흡연자들을 볼 수 있다. (중략) (ㅋ) 담배에 니코틴이라는 중독 성분 이 있다고는 하는데 고작 중독 성분 때문에 금연(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이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금연을 하다가 기어코 금금연(금금연) 상태로 변해서 다시 흡연을 하게 되어 (ㅋ) 우유에 시리얼을 부어서 말아먹듯이 의지를 말아먹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담배를 싫어한다.

(ㄱ)은 일단 비문이다. ‘도입 부분에서’와 ‘시작된다’가 호응하지 않기에 ‘도입 부분은’으로 수정하고 ‘시작된다’의 피동 표현보다는 ‘시작한다’라는 능동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군대에 전역을 하고’에서는 조사를 진행 방향의 의미가 있는 ‘~에’로 잘못 쓰고 있다. (ㄴ)에서는 먼저 ‘장면 이었다’에서 띄어쓰기의 잘못과 맞춤법의 오류를 지적할 수가 있다. 또한 ‘내가 슬픈 장면이었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지 매우 어색한 표현이다. ‘내가 다 슬픈’인지 ‘나까지 슬퍼지는’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ㄷ)과 (ㄷ)은 시제의 문제인

데, (ㄷ)은 ‘생각했었다’라는 대과거시제보다는 ‘생각했다’라는 시제로 써야 자연스럽다. (ㄸ)은 다른 학생의 글을 평가한 평가문의 일부분으로서 과거시제인 ‘좋았다’로 써야 할 것을 현재시제인 ‘좋다’로 표기하고 있다. 최근에 학습자의 글에서 나타나는 시제의 오류는 심각한 수준이다. (ㄹ)에서는 ‘~으로 인해(duo to)’라는 번역 투를 쓰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면 ‘부상으로 추구를 그만두고 하루하루를’ 정도로 수정할 수 있다. (ㄴ)에서는 ‘피식하는’이 ‘부분이었다’를 꾸미고 있는데, ‘부분’이 피식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다. (ㄷ)에서는 자신이 느낀 확실한 감정을 전달하는 부분인데, ‘~것 같다’라는 ‘추측,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 (ㄹ)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문장이며, (ㄷ)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접속어이다. (ㄷ)은 ‘중독 성분’, ‘금연’ 등의 용어가 여러 번 반복되나 한 번이면 족하고, (ㄷ)에 기술한 ‘우유에 시리얼을 부어서 말아먹듯이’란 표현은 매우 어색하며 상황에 맞는 수사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 밑줄을 치는 것이다.

(ㄷ) 영화 속 부정해고를 당한 직원들은 노조를 만들어 맞서 싸운다.

(ㄷ) 나중에 협연원단(KEK단)과 주인공과 같은 담배 애호가인 서양화가 구사카베씨가 극에 달하는 갈등 상황을 겪게 되는데 (ㄷ) 이들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치게 하면서 후에 운전을 하면서 구사카베씨가 “이야, 재밌네요.” 라고 말하는 소름끼치는 부분도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구사카베씨와 같이 올라가지만 굳이 구사카베씨는 헬리콥터에서 발사된 최루탄에 맞아 추락하고 혼자 남은 주인공은 최후의 찍연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방송을 듣고 그렇게는 되기 싫다며 밀로 뛰어내리지만 이미 지상에는 그것을 대비한 모든 준비가 다된 상태였다.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났다.

(ㄷ) 그 아이는 모든 것이 불만스러울 따름이었다. 태어난 뒤로는 배고픈게 불만스러워 울고 (중략) 기말고사에서 1등을 하지 못한게 불만스러워 밤을 새웠다.

(ㄷ) 내가 연출가의 꿈을 가지게 된 건 가수들이 티브이에 나와 노래를 부를 때였습니다. / H\*\*\* AH R\*\*\* / 정의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이 책을 읽는 것이 어느 스펙보다 뚜렷하고 완벽한 스펙이 되지 않을까?

또한, (ㄷ)에서는 ‘부당해고’라는 용어를 ‘부정해고’로 쓰는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ㄷ)에서는 여러 문장을 길게 이어 씌으로써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글

이 되고 있다. (ㄷ)은 문장을 기술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치게 하면서’의 주체가 ‘협연권단’인지 ‘협연권단, 주인공, 구사카베’인지 시점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 (ㄹ)에서는 ‘~것’에 해당하는 구어체 ‘~게’를 마치 연결 어미로 알고 쓰고 있다. (ㄱ)에서는 외래어인 ‘텔레비전’을 ‘티비’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이름을 영어로 쓰는데 ‘야’에 해당하는 ‘A’를 ‘AH’로 쓰는 등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스펙’과 같은 외국어를 남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밑줄을 친다. 다음은 네 영역에 걸쳐 설명한 내용에 따라 학습자에게 ‘밑줄 탐구 첨삭’을 유도하기 위해 교수자가 수행한 Feedback Line의 예시(1차, 2차 텍스트)이다.

〈밑줄 탐구 첨삭〉을 위한 Feedback Line - 1차 텍스트

Why So Serious?

김○○ (사회복지학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나를 알리는 글을 쓰게된 사회복지학과 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저 자신을 제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알리는 글쓰기는 저에게 하나의 시련이기에 제가 아무리 못해도 상처는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못생기지 않습니까? 걱정마세요! 저도 못생긴건 알고 있으니 6개월 뒤에는 더 잘생긴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못생긴 모습을 참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제 외모를 말하 이유는 저는 연애경험이 없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실분 있으시면 연락이라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라도 기다리고 있어요. 인제 외모는 그만 말하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무너지고 있는것 같아서 한숨만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저를 소개하면, 저는 마카롱, 커피, 음악을 좋아합니다. 제 삶의 활력소같은 것들입니다. 이 3가지는 저에게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 3가지로 유희하시면 됩니다. 단 과격한 운동, 화풀이, 무시는 저에게 분노로 자극되니 조심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음... 소개하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머리에서 생각해볼게요 아! 저는 말이 많고 분위기 파악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말 친구가 필요하거나 사소한 고민은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진지한 고민은 피해주세요.

저는 합리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의문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것이 항상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좋습니다. 의문을 가지기도 좋고 기혹한 진실보다는 웃으면서 지나갈수 있는 거짓말이 좋습니다.

더 이상 진짜로 쓸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지만 저를 기억하기 힘들다면 마카롱, 김동 또는 뽕이라고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가자: 강○○

‘주제 에세이’ 1차 학생 평가문 (미디어문화)	
평가 방법	※ 숲 밖: 구성, 핵심내용, 주제, 평소생각, 동조 여부, 반박(원인·해결책) 등. ※ 숲 속: 예시 및 문단(식제 및 첨가), 장단점(개선방향), 독자효과, 제목, 형식, 비판을 넘어 조언. ※ ‘재밌어요’, ‘잘 읽었습니다’ 등의 한 줄 평가는 인정하지 않음. ※ ‘~것 같다(같아요, 같습니다, 듯하다)’, ‘~에 의한(의하여, 의해)’, ‘~에 대해(대하여, 대한)’, ‘~를 통한(통해서, 통하여)’, ‘~로 인한(인해, 인하여)’ 등은 가급적 쓰지 말고 다른 표현으로 바꿔 보세요. ※ 느끼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기술하세요. ※ 문장 및 맞춤법 등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은 질문을 하세요. (공간 부족 시 뒷면 활용)
평가 대상	
1 장○○ 흥○○	일상생활과 근접한 내용을 주제로 잡아 많은 부분을 공감하며 읽었다. 나도 통신언어를 가끔 사용하긴 하지만 내가 모르는 의미의 통신언어도 많아서 놀랐다. <u>이글의 주장대로 무분별한 통신언어의 사용을 하지 말자는 것에</u> 동의한다. 하지만 <u>의사소통 단절이라는 주장에</u> 구체적인 근거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해결 방안도 다른 사람의 연구 논문을 가져왔을 뿐 글쓴이들의 생각이 <u>담겨 있지 않다.</u> 주장문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생각하는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김○○ 박○○	하략 

#### 4. 결론: 과제와 전망

본고는 첨삭하는 시간은 줄이면서도 지도의 효과는 배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첨삭 지도 방법으로 ‘밀줄 탐구 첨삭’을 제안했다. ‘밀줄 탐구 첨삭’이란 전달자인 교수자가 제시한 밀줄과 박스를 피전달자인 학습자가 탐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간접적 계기’를 제공하는 첨삭 지도이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글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밀줄을 긋

거나 박스를 쳐 주고, 학습자는 해당 피드백 라인에 담긴 오류를 사전에 제공된 단서(탐색지) 안에서 고민하며 스스로 자신의 글이 지닌 문제점을 찾고 이를 자율적으로 수정해 나가게 된다. 이 방식은 학습자가 교수자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항상 잔존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밑줄 탐구 침삭 시에 교수자는 자신이 제시한 오류 항목들에 학습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정을 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수자가 원하는 요소를 찾지 못해서 전혀 엉뚱한 탐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다. 교수자는 다음번에도 똑같은 부분에 밑줄을 치면 될 일이다. 그렇게 되면 학습자는 어느 순간에는 교수자에게 질문을 할 것이고, 교수자는 그때를 기다리는 '대화하는 조력자'가 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로 '밑줄 탐구 침삭'은 지금보다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지속적으로 실행으로 옮기려고 노력 중이다. 한편 수업 방식에 따라서는 밑줄 탐구의 구체적 적용을 단계별로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본 논문은 밑줄 탐구 침삭 방식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며 효과적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은 논문의 분량 문제이기보다는 방향성의 문제였다. 본 논문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침삭 지도 방식의 이론적 측면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연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밑줄 탐구 침삭이 지닌 효율과 효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거나 학생들과 면담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험의 경우는 밑줄 탐구 침삭으로 지도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의 차이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해당 침삭 지도 방식을 도입한 이후에 학생들이 글쓰기 수업에 보인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과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몰라보게 성장했다는 것을 교수가 목도했다는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본 논의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물로서 실용 논문을 지향했다. 따라서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침삭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논문

- 김경훤, 『대학 글쓰기 교육의 침삭 지도 사례』, 『새국어교육』 제83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 김광민, 『교과교육과 간접전달』, 『도덕교육연구』 제22권 2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011.
- 김낙현, 『대학 글쓰기 교육의 효과적인 침삭지도 방법에 대한 고찰』,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2호, 한국 교양교육학회, 2012.
- 나은미 외 4명, 『대학 글쓰기에서의 침삭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 방안: 한성대학교를 중심으로』, 『한성어 문학』 제28집, 한성어문학회, 2009.
- 남진숙, 『글쓰기 침삭의 효과적인 교수학습법』, 『사고와 표현』 제6권 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3.
- 박상민·최선경,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침삭지도의 실제적 효용 연구: 수정 전후 글의 변화 양상 및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16집, 한국작문학회, 2012.
- 박영우, 『글쓰기 지도에서 침삭지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시민인문학』 제14집,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 박진숙, 『침삭지도라는 공통감각과 대학 글쓰기 교육의 개선방향』, 『반교어문연구』 제26집, 반교어문학회, 2009.
- 변상출, 『단계별 침삭지도를 통한 글쓰기의 실제 효율성 강화방식에 대한 고찰: ‘글쓰기’ 교재를 활용한 침삭지도의 방안 모색』, 『한민족문화연구』, 제47집, 한민족문화학회, 2014.
- 손혜숙, 『대학 글쓰기의 침삭지도 사례와 교육적 효과』, 『한민족문화연구』 제41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
- 신현규, 『대학 글쓰기 침삭교육의 고찰: 중앙대학교 글쓰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 제35권, 한국문화융합학회, 2013.
- 안미애·김영철·지현배, 『맞춤형 침삭 매뉴얼을 활용한 표준 글쓰기 클리닉: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표준 글쓰기 클리닉’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작문』 제6집, 대학작문학회, 2013.

- 염민호·김현정, 「대학 ‘글쓰기’ 교과에 활용 가능한 피드백의 특성과 방법」,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 오윤호, 「대학 글쓰기의 효과적인 피드백 방안」, 『한민족문화연구』 제25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 이순옥, 「현장 사례를 활용한 첨삭 지도 모형 설계」, 『대학작문』 제8호, 대학작문학회, 2014.
- 이순희, 「과정 중심 첨삭지도의 효율성 연구: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2014.
- 이은자, 「교사 첨삭 피드백의 원리와 방법」, 『작문연구』 제9호, 한국작문학회, 2009.
- 이재현, 「대학생 글쓰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식적 오류의 유형과 지도 방안: 동덕여대 <독서와 글쓰기> 수강 학생들의 글쓰기를 대상으로」, 『사고와 표현』 제7집 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4.
- 주민재, 「첨삭지도와 수정의 관점에서 고찰한 대학 글쓰기 연구 경향」, 『국어문학』 제56집, 국어문학회, 2014.
- 주세형, 「작문의 언어학(1): ‘언어적 지식’에 근거한 첨삭 지도 방법론」, 『작문연구』 제10집, 한국작문학회, 2010.
- 지현배, 「글쓰기 첨삭 지도의 실태와 수강생의 반응분석: 경북대학교 글쓰기 강좌의 경우」, 『대학작문』 제2호, 대학작문학회, 2011.
- 최규수, 「첨삭지도의 원론적 방식과 효율적인 지도 방법의 제안」, 『이화어문논집』 제19집, 이화어문학회, 2001.

## 2. 단행본

- 이상원, 『서울대학교 인문학 글쓰기 강의』, 황소자리, 2011.
- Kant, Immanuel., 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 Manheimer, Ronald J., 이홍구·임병덕 역, 『키에르케고르의 교육이론』, 교육과학사, 2004.

## 3. 기타 자료

- 군산대학교 교육개발원, 「2015학년도 기초핵심교육 개선을 위한 워크숍」, 2015. 2.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교수자 개인이 수업부터 첨삭까지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첨삭하는 시간은 줄이면서도 지도의 효과는 배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첨삭 지도 방법으로 ‘밑줄 탐구 첨삭(Writing Feedback Line)’을 제안했다. ‘밑줄 탐구 첨삭’이란 전달자인 교수자가 제시한 밑줄과 박스를 피전달자인 학습자가 탐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간접적 계기’를 제공하는 첨삭 지도이다. 따라서, ‘밑줄 탐구 첨삭’은 학습자가 작성한 글에 밑줄과 박스만으로 첨삭의 임무를 완수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글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밑줄을 긋거나 박스를 쳐 줌으로써 비로소 학습자는 탐색을 시작한다. 형사가 폴리스 라인 안쪽에 있는 단서를 보고 수사를 진행하듯이 학습자는 밑줄이 그어지거나 박스가 쳐진 부분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글이 지닌 문제점을 찾고 글을 수정해 나가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미리 교수자가 제공한 단서(탐색지) 안에서 오류를 고민하면서 수정을 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밑줄 탐구 첨삭의 실재를 글의 형식적, 구성적, 내용적, 어법적 측면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과도한 수강 인원이나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 등으로 첨삭 지도의 고충을 토로하는 교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했으며, 첨삭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키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학 등의 여타 기관에서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논문을 구성하였다.

주제어: 밑줄 탐구 첨삭, 첨삭 지도, 피드백, 글쓰기, 간접전달

【Abstracts】

## The Way of Efficient Feedback for Improving Ability to Write

– The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 Feedback Line’ –

Im Hyeong-mo

For a professor, writing education was a double difficulties of teaching and writing feedback. That is the reality of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To resolve this matter, I suggested the way of efficient feedback, which would reduce feedback times. It is called the ‘Writing Feedback Line’. This method provides indirect occasion for learners. This teaching method uses indirect communication. For example, a professor underline(or blocked) the wrong part in writings of learners. And then, learners investigate the wrong part watching the feedback line. Learners correct their writings watching the feedback line, as the police are digging deep into some case to solve it. ‘Writing Feedback Line’ have a similar structure to police line. Knowledge about the correct way of investigating items must be in place before learners investigate their writings. In conclusion, this study places emphasis on practical in work: format, plot, content, grammar.

Key words: Writing Feedback Line, writing feedback, feedback, writing, indirect communication, writing education

이 논문은 2015년 9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0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